
 금융위원회	보도참고자료				 혁신금융 더 많은 기회 함께 하는 성장
	보도	배포시	배포	2019.6.18.(화)	
책 임 자	금융위 금융혁신과장 송 현 도(02-2100-2530)		담 당 자	양 병 권 사무관 (02-2100-2535)	

## 제 목 : 한국 19년 핀테크 도입 지수 67%(17년 32%)로 상승

- 우리나라의 핀테크 도입 지수(Fintech Adoption Index)는 '17년 32%에서 '19년 67%로 큰 폭 상승 (싱가폴, 홍콩 등과 동일)
- \* 글로벌 컨설팅 회사인 EY(Ernst & Young)가 '15년부터 2년마다 조사
- 분야별로는 송금·지급결제 분야가 가장 두드러졌으며, 소비자들은 저렴한 수수료를 핀테크 서비스 선택에 가장 중요한 요소로 고려

### 1. 핀테크 도입 지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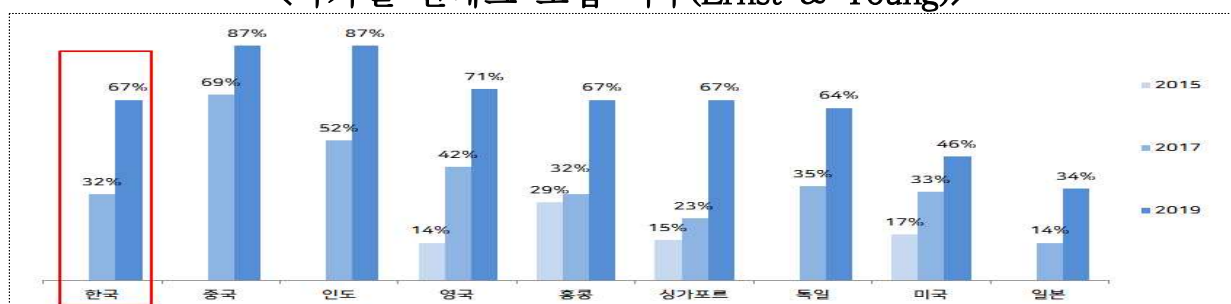
- 글로벌 컨설팅 회사인 EY(Ernst & Young)는 '15년부터 격년별로 핀테크 도입 지수\*를 조사 중이며, 최근 '19년 보고서를 발간\*\*

\* 조사대상 중 최근 6개월간 2개 이상의 핀테크 서비스를 이용한 비율

\*\* '15년 6개국 1만명, '17년 20개국 2.2만명, '19년 27개국 2.7만명으로 조사대상 확대 중

- 우리나라는 '19년 67%로 '17년 32% 대비 2배 이상 상승하여 싱가포르, 홍콩 등과 동일하며, 핀테크 선진국인 영국(71%)과 유사한 수준
- 중국, 인도 등 신흥국은 핀테크 도입 지수가 높은 반면, 미국, 일본 등 전통적으로 금융이 성숙한 국가에서는 핀테크 도입 지수가 낮은 편

〈국가별 핀테크 도입 지수(Ernst & Young)〉



※ '15년에는 6개국에 대해서만 조사하였으며 우리나라는 '17년부터 조사

## 2. 핀테크 분야별 인지도 및 이용률

□ 핀테크에 대한 소비자 인지도\*는 송금·지급결제(96%), 보험(86%), 투자(78%), 대출(76%) 등 대부분의 분야에서 높은 수준이며,

- 특히, 송금·지급결제 분야는 글로벌 소비자의 96%가 인지하고 있으며, 이미 4명중 3명이 이용하고 있는 등 핀테크 분야 중 가장 활성화

\* 한편, '19년에는 보험 분야의 이용률이 크게 증가('15년 8% → '17년 24% → '19년 48%)

## 3. 소비자 선호

□ 소비자들은 저렴한 수수료(27%)를 핀테크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장 큰 이유로 생각했으며,

- 온라인(앱) 통합조회 서비스 및 無지점(비대면) 금융서비스 등을 선호
- 한편, 다수 소비자들은 핀테크 이용시 개인정보 보안 우려도 제기

□ 68%의 소비자들은 혁신적 기술을 기반으로 금융서비스 상품을 개발하는 非금융회사의 핀테크 서비스를 사용할 의사를 보임

## 4. 시사점

□ (금융산업) 핀테크는 그동안 정책적 노력 및 기술 발전과 더불어 꾸준히 발전하면서 이제는 금융산업의 트렌드로 굳어지는 상황

- 핀테크 혁신 속도가 가속화되면서 금융서비스의 새로운 표준으로 등장 (EY는 핀테크기업이 전 세계적 영향력을 가진 경쟁자로 성장했다고 평가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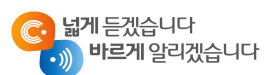
□ (정부정책) 핀테크 생태계에 우호적인 환경 조성을 넘어, 금융소비자 편의 제고, 글로벌 핀테크 유니콘 육성 등을 위한 핀테크 스케일업(scale-up) 차원의 본격적 정책 지원\* 필요

\* 전략적 맞춤형 규제완화, 핀테크 투자 활성화, 핀테크 해외진출 지원 등



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 
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.  
<http://www.fsc.go.kr>

금융위원회 대변인  
[prfsc@korea.kr](mailto:prfsc@korea.kr)



“혁신금융,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”